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통과 화합을

포항시의 감사운동 전개

2012년부터 포항시가 전개하는 감사운동은 포항시의 “행복도시 캠페인”의 일환으로 감사와 선행을 나누는 시민운동이며,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현재 감사운동은 공무원 사회로부터 시작하여 종교계, 학교, 기업, 군부대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감사운동 과정에서 선거 운동으로 오해받거나, 쓸데없이 업무만 바쁘게 한다는 내부 불만도 있었지만, 감사운동을 전개한 이후 포항시민의 행복지수, 시민들의 친절도가 크게 향상되는 등 국민대통합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포항, 감사운동의 진원지가 되다

2012년부터 경상북도 포항시는 ‘감사’로 들끓었다. 어디를 가나 감사 캠페인 현장이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감사에 비례한다”는 믿음으로 감사가 나와 가족, 학교와 직장 나아가 도시와 우리 사회 전체를 행복하게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감사운동을 추진한 것이다. 포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허둥대며 가면서도 늘 웃으며 출근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피곤하여 힘들어도 웃으며 퇴근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누가 힘들게 해도 가볍게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힘들고 어려움을 넘어 배려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늘 표현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나의 무덤덤함에도 헤아려주는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함께 국민행복

이웃이 함께하면 모두가 행복해요

감사 방송의 첫 마이크를 잡은 포항시장이 시청 직원들에게 한 감사의 인사이다.

이색적인 감사도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FINEX 사업부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 설비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선로 아래에서 TLC의 무게를 고장 없이 깨끗하게 측정하는 Load cell에 감사합니다.

착부착이 쉽게 개선된 DRI Screw Speed Sensor에 감사합니다.

용융로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 입력 발신기가 고장 없이 운전되어 감사합니다.

신설된 노체 압력 발신기 12대 모두 정상 지시되어 감사합니다.

Cooling Gas 내의 Tar 누적 등에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C/V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설비에 대한 감사 쓰기에 참여한 한 직원은 설비에 감사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부품, 트러블, 점검 이력 등 설비에 대해 상세히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설비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가 제고됨으로써 고장이 줄어들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왜

감사운동인가?

대한민국은 과거 최빈국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그 풍요는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국민행복지수는 세계 63위이다. 선진국은 고사하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보다 떨어지는 수치다. 자살률, 이혼율, 저출산율 등의 지표는 OECD 국가 중 바닥을 달린다. 학교 폭력, 악성 댓글, 욕설 등 학생들의 인성 문제도 심각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포항시에서는 감사의 실종을 중요한 원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감사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실천에 나섰다. 과거 새마을운동으로 한국을 변화시켰듯 이제는 새마을운동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국민의 행복을 만드는 감사운동이라는 것이다.

2012년 3월, 뜻을 같이한 포항시, 포항교육지원청, 포항상공회의소,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참여하여 포항시 감사운동본부가 구성되었다. 시장, 교육장, 상의회장, 제철소장이 공동 대표를 맡았다. 이어 5월 23일 3,000명 모인 가운데 감사운동추진본부 출범식이 거행된 이후 적극적인 감사운동이 전개되었다. 이후 전국 200여 개 기관과 단체가 감사운동을 배우기 위해 포항을 찾았다.

감사운동은 2013년 포항시의 시정 중점 사업이다. 시민과 기업, 학교 등 감사운동 확산을 위한 TF팀이 조직되어 있을 정도다.



감사운동 추진

포항의 각계각층에서 감사운동이 벌어졌다. 가장 먼저 포항시 공무원들이 감사운동의 전도사로 변모했다. 이를 위해 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매월 한두 차례의 감사 마인드 교육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2,000여 명의 포항시 공무원이 모두 참여하는 1박 2일의 워크숍을 치르기도 했다.

포항시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생활화하기 위해 입체적인 사업을 펼쳤다. 감사 퍼포먼스 경연대회가 개최되었고 시청 내에서는 매일 감사 방송이 두 차례 흘러나온다. 매일 5가지 감사한 일을 쓰고 매월 100가지 감사한 일을 써서 공모를 하고 시상도 한다. 감사 게시판과 감사 계단, 감사 인형을 만들어 감사 릴레이 운동을 펼치고 일상에서 감사를 잊지 않도록 감사 배지, 스티커, 접시 등도 만들었다. 감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한다는 취지로 감사 저금통 모금 활동도 진행 중이다.

시민 감사운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종교계가 감사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2년 5월부터는 매월 시민 대상 100가지 감사한 일을 공모하여 시상한다. 40명의 감사 멘토를 선발해서 시민 대상의 감사 특강을 진행한다. 시 관내 21개소에 감사 둘레길도 조성했다. 그리고 범시민 감사운동 워크숍을 실시했다. 하루나 1박 2일 일정으로 감사 둘레길을 탐방하고 감사한 일 편지 쓰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민 사이에 감사운동 붐을 조성하기 위해 감사 결혼식, 감사 칠순잔치, 감사한 일 편지쓰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교정기관 수형자의 인성 순화를 위해서도 감사운동이 효과적으로 전개되었다. 기존 반성문을 부모님에 대한 50가지 감사한 일 쓰기로 대체하면서 큰 효과를 보았다.

학교와 기업, 군부대 등에서의 감사운동도 적극 장려되었다. 초등

학교 한 곳, 중학교 두 곳, 고등학교 두 곳 다섯 개의 감사운동 시범 학교를 선정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감사를 통해 학생 인성 함양을 꾀하고 있다. 5가지 감사한 일 쓰기, 가족이나 임직원에게 100가지 감사한 일 공모 등도 계속 시행되고 있다. 포항의 해병대에서는 5,000명의 장병이 감사 편지 쓰기에 동참했다.

감사운동 추진 과정에서의 난관

감사운동은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과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 추진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감사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하고 낯선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운동을 선거 운동의 하나로 오해하여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공무원 조직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는 등 정략적 반대가 일어났다. 감사운동이 업무를 증가시킨다며 반발하는 공무원노조와 일부 공무원들의 저항도 존재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끄는 혁신적인 시도는 초기에 저항을 불러왔다는 역사를 환기하며 적극 홍보와 설득을 펼쳤다. 최초로 하는 운동이다 보니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감사운동이 과거 새마을운동처럼 역사적 국민정신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파했다.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의 좋은 평가와 협조는 감사운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운동의 명분을 쌓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감사운동은 2013년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으로부터 인성 교육 우수 지역 제1호 동판을 수상했으며 교육부의 인성 교육 우수 프로그램 No.1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감사국민위원회, 한국선진화포럼 등과

감사운동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강제를 통한 촉진보다는 긍정적인 방법을 통한 운동 확산에 힘썼다. 페널티를 주는 대신 참여도가 높은 직원을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텔레비전 방송국과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해서도 국민 행복을 위한 감사운동을 홍보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의 감사운동 배우기 방문 등의 자료를 활발하게 배포했다.

웃지 못할 오해도 있었다. 감사운동 추진 초창기에 “감사운동”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걸어두었는데 다른 곳에서 방문한 손님들이 이것을 보고 포항에는 비리가 많아 ‘감사(監査)운동’을 어떻게 열심히 한다는 오해를 하기도 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감사(Thanks)’라고 표현하고 있다.

행복을 창조한 감사운동

감사운동은 현실에서 성과를 낳았다. 감사운동을 추진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변화가 일어났다.

공무원의 업무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2012년 만족도 평가가 58.5점이던 것이 2013년 60.4점으로 점수가 높아졌다. 감사와 나눔, 배려와 소통의 직장 분위가 형성되어 업무 역량도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포항 시민 행복도 역시 눈에 띄게 좋아졌다. 2012년 55.8점에서 2013년 62.2점으로 뛰어올랐다. 감사로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직장이 행복해지고 사회문화가 밝아질 수 있음이 잘 드러났다. 부모와 자녀, 시어머니와 며느리, 부부 간, 연인 간 감사 표현은 행복한 관계를 창출했다.

감사와 나눔, 소통과 배려의 선진 시민의식 함양 효과도 나타났다. 나눔과 기부 문화가 확산되어 장학금 등 각종 성금 모금이 늘어났다. 긍정과 배려의 사회 문화가 조성되는 것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한 예로 버스 운전기사와 시장 상인 등의 친절도가 향상되었다.

감사는 기업 직원들의 행복 지수와 성과 몰입도를 높였다. 포스코 ICT 직원의 경우 2009년 43%의 성과 몰입 지수가 2012년 90%로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포스코 직원의 행복지수는 2012년 95점으로 기업 중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생산성도 향상되어 포스코 ICT 수주량은 2009년 9,000억 원에서 2012년 2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제품 불량과 설비 트러블도 감소했다. 2011년 0.4%의 불량률은 2012년 0.15%로 낮아졌다.

포항의 감사운동은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의 말 한마디, 편지 한 줄이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가족의 사랑을 이어주며 행복하고 생산적인 직장 문화를 창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지역 전체가 행복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것은 함께함으로써 행복한 국민 화합의 큰 가능성이 되고 있다.



포항시의 감사 워크숍



포항시의 555 행복 배달부